

# “광주전남연구원, 지역 소외 대책 제시해야”

### 오늘 개원 30주년 기념식...국가균형발전 거점기관 경쟁력 시급 대선 앞두고 지역 미래 밝힐 분야별 정책·프로젝트 발굴도

창립 30년을 맞은 광주전남연구원이 명실상부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법·제도 정비, 비수도권 및 소외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제시 등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구·경제 규모에서 정체·쇠퇴하고 있는 광주·전남지역의 성장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에 보다 충분한 지원을 요구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전남연구원은 19일 “오는 20일 연구원 내 상생마루에서 허정 이사회 이사장, 정인채 발전자문위원장, 박양호 연구자문위원장 등이 참석

한 가운데 개원 30주년 기념식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개원 30주년을 맞아 그동안 연구원이 걸어 온 과거를 되돌아보고, 성찰을 통해 현재를 진단하며,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 마련됐다. 원장 기념사에 이어 참석한 귀빈들의 축사 및 개원 30주년 기념 축하 기념떡 커팅, 연구원이 걸어 온 발자취 영상 시청, 감사패 증정, 장기근속직원 포상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연구원은 1991년 12월 전남발전연구원으로 개원한 뒤 광주·전남의 성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으나 한편으로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현안사업에 매몰되면서 중추적인 역할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현장과 괴리된 정책 제안에 그쳐 구체적인 대안 제시 역시 부족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따라 향후 연구원이 시도의 현안 사업과 관련된 각종 요구를 수용하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타 지역 연구원과 선의의 경쟁이 가능한 수준으로 연구 자율권을 부여하고 충분히 인력,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 지역 내 연구개발 기능을 가진 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원 등의 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미래를 밝힐 분야별 대규모 정책 및 프로젝트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재영 광주전남연구원장은 “30주년을 맞아 연구원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지역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지역 거점 연구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1991년 12월 전남발전연구원으로 처음 개원한 이후, 1995년 6월 연구기능 일원화 취지에 따라 광주전남연구원으로 새롭게 통합 출범했다.

하지만 2007년 7월 도시와 농촌의 행정과 연구 영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광주발전연구원과 전남발전연구원으로 각각 분리됐다가, 민선 7기가 들어서면서 2015년 9월 광주·전남 상생을 위한 상징으로 통합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시, 하천 오염사고 방지 하남·평동산단 완충 저류시설

광주시는 “수질 오염 사고를 막으려고 하남·평동산단에 국비 815억원 등 1163억원을 투입해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하남 산단에 735억원을 투입해 2024년까지 2만8000t 규모 저류시설과 관로를 설치하기로 했다.

평동 산단 시설은 2023년 착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 중이다. 하남·평동 산단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완충저류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면적(150만㎡)과 폐수 배출량(하루 5000t)을 넘어섰다.

조성된 지도 30년이 지나 오염물질 유출, 화재 등 발생 시 인근 영산강, 풍영정천 오염이 우려된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완충 저류시설은 산단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화재 시 유해 물질이 하천으로 곧바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다. 공장이나 도로에 쌓인 오염물질이 빗물을 따라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도 막아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전남도-노사민정 ‘전남형 상생일자리’ 성공 다짐 협의회 개최

전남도와 노사민정이 한 자리에 모여 지난 2월 대통령과 노사민정 37개 기관 대표가 함께 협약 선포식을 가진 8.2GW 해상풍력 ‘전남형 상생일자리’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다짐했다.

전남도는 지난 17일 한국노총 전남지역본부, 발전사, 제조업체, 어민대표, 유관기관 등 노사민정 관계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21년 하반기 ‘전남형 일자리 상생협의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를 감안해 이날 회의는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했다.

전남도는 ‘전남형 상생일자리’ 지정 추진상황과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 연구용역, 주민참여형 사업모델 개발 용역 결과 등을 보고하고, 노사민정 대표 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노사민정이 공동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발전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새로운 소득원도 창출하는 ‘전남형 상생일자리’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데 다시금 뜻을 모았다.

전남도는 지난 11월 말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정신청서’를 산업부의 산업연구원에 제출하고 관련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이달 초에는 상생일자리 참여기업에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노사관계 및 산업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다.

전남도는 ‘전남형 상생일자리’ 정부 지정에 온 힘을 쏟아 내년 상반기 중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조석훈 전남도 해상풍력산업과장은 “8.2GW 해상풍력은 장기간 소요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라며 “지역주민, 발전사, 제조업체 등 각계각층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등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전남형 상생일자리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AI 뉴딜 운영성과 보고회 이웅섭 광주시장이 17일 오후 시청 접견실에서 조환익 AI-뉴딜추진위원장으로 부터 2021년 위원회 운영성과보고서를 전달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목포·영암 고용위기지역 내년 말까지 연장

### 전남도, 서남권 지역 경제 활성화·고용 회복 기대

오는 31일자로 종료 예정이던 목포·영암군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14~16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목포·영암을 비롯한 전국 7개 지역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의결했다. 조선업황이 확실히 개선될 때까지 정책적 지원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연장 조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된

전남 서남권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근로자에겐 훈련연장급여 지원과 생활안정자금 용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조건 완화 등 혜택이, 사업주에겐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지원금,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등 지원 확대가 계속된다.

최근 조선업은 수주량 증가 등으로 업황이 호전되고 있다. 하지만 고용 증가로 이어지기까지는 2년여 기간이 걸려 고용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주요 생산인력인 청년층의 지속적인

유출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고용 어려움은 여전히 가중되고 있어, 지역 산업과 고용의 회복을 위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건설 전남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근로자 생계부담 완화와 취직 기회 확대, 사업주의 고용유지,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정부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일자리·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발굴, 확대해 고용위기지역이 빠른 시일 내 경제활력을 회복하도록 시·군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에 홍인화 연구실장 임용

광주시는 “20일자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에 홍인화(사)5·18민주화운동기록관 5·18연구실장을 임용한다”고 19일 밝혔다.

개방형 직위인 기록관장 공모에는 7명이 응모했으며, 서류심사와 면접,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기록관장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공인된 5·18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5·18민주화운동 관련 각종 조사 및 연구, 국내외 민주인권 분야 교류 업무와 민주·인권도시로서의 광주정신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신임 홍인화 기록관장은 (사)고려인 마을 상임이사, 광주 북구위원과 광주시의원 등을 역임했으며,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에 관한 연구와 민주인권 분야 대외협력 역량을 두루 겸비한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년동안 5·18연구실장으로 재임하면서 미국의 비밀해제 문서를 수집·보존·관리하고 5·18기록물 자료의 DB화 사업 등도 적극 추진했다.

김종화 광주시 인사정책관은 “공모를 통해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겸비한 5·18민주화운동 전문가를 임명했다”며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연구와 홍보분야에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 2022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승미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 열	모 집 단 위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학 과	수 시	정 시	
인 문 사 회	신 학 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2	2	
사 범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명생교육상담학 전공)	31	3	
	유아교육과	7	3	
예 능	음악학부	23	6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총 계		93	29	

■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1. 9. 10(금) ~ 14(화) · 전 형 일: 2021. 10. 1(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1. 12. 30(목) ~ 2022. 1. 3(월) · 전 형 일: 2022. 1. 10(월)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역지소 36